

경남도, 9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316억 투입

산업단지 재생사업 86억
구조고도화 사업 230억 원
창원산단 등 9곳 기반시설
문화·복지·편의시설 등 확충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경남도는 올해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9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316.3억 원(국비 117.1, 지방비 199.2)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향상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등을 통해 기반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산단, 양산일반산단, 함안철서일반산단, 사천제1·2일반산단 등 5개 노후 산업단지에

해 86.3억 원(국비 41.9, 지방비 44.4)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은 지난해부터 착공해 노후도로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진주상평일반산단은 주차장 및 도로확장 부지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은 출·퇴근 시 노동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한 양산2교를 작년 11월 개통했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 2021년 3월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함안철서일반산단, 사천제1·2일반산단은 재생 및 실시계획 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은 입주업체의 고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해 진주상평일반, 김해진영죽곡농공, 의령동동, 부림·봉수농공, 함안철서일반산단, 범수농공, 거창승강기전문농공 등 7개 노후 산업단지에 230억 원(국비 75.2, 지방비 154.8)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해 진영죽곡농공단지, 의령 동동, 부림·봉수농공단지, 함안 범수농공단지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는 ‘통합센터(복합문화센터+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공공 일자리 사업 ‘활발’

진도군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계 안정을 유도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사업 14개 사업에 총 54명을 선발, 지난 3월초부터 진도개떼마파크, 윤림삼별초 공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신중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위해 관광지 관광 안내와 미술관 전시 작품 해설 등에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창원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5년 연속 1위

창원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지방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남도가 진행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019년부터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무 조사, 지방세 심사, 세외 수입, 지방소득세, 세정 일반 등 8개 분야 22개 항목을 지표로 삼아 분야별 총망라해 진행됐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진주시

지역순회 무형유산 공연 유치

진주시는 13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굿(GOOD)보러가자’ 공연을 진주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굿(GOOD)보러가자는 지역 순회 공연으로 2004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스토리가 가미된 전통 문화예술 공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등 최고의 명인들을 만날 수 있는 ‘문화의 창’으로 역할을 해왔다.

가·무·악·퓨전 등 장르를 망라하는 옴니버스식 구성을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로 채워지며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 진주시가 협조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진주(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영주시-소백산생태탐방원

외국인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생태탐방원(원장 주재우)이 함께 손잡고 국제관광 체계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시는 13일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석사·소수서원과 소백산국립공원을 연계한 ‘외국인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3월 11~12일 이틀간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등산 동호회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1일차는 소백산 등산(희방사-연화봉-비로봉-삼가야영장), 2일차에는 소수서원 탐방과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풍기인삼을 활용한 인삼요리체험 등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지난해 불국사 겹벚꽃 축제 현장 사진

‘경주벚꽃축제’ 볼거리 가득

대릉원돌담길과 봉황대 일원 개최 플로깅, 반려견 놀이터 등 체험

경주벚꽃축제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대릉원돌담길과 봉황대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그간 벚꽃축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021년은 행사가 취소됐고, 지난해는 행사가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축제를 기다리는 방문객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 벚꽃축제 분위기는 예전과 달리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경북도 지정 축제로 인정받은 만큼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도시 매력을 다시 한 번 보일 계획이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벚꽃

을 소재로 친환경, 반려견 등 ESG*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축제로의 변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벚꽃거리예술) ▲ESG(벚꽃같이보깅, 벚꽃댕이놀이터) ▲공간연출(벚꽃 명, 벚꽃 빛&벚꽃사위) ▲체험(무료사진인화, 벚꽃리미티드) 등이 있다.

벚꽃같이보깅은 ESG 부문의 일환으로 종이 또는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을 친환경 나무 컵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과 벚꽃을 보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이벤트로 펼쳐진다.

벚꽃댕이놀이터는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화공간을 조성해 반려견 등록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반려견 놀이터와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전남, 체험·휴양 100만 관광객 확보 시동

시설 개보수·콘텐츠 개발 28억 투입

전남도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용

전남도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와 콘텐츠 강화에 28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했다.

올해 관광 추세인 ‘나’라는 핵심어에 맞춰 워케이션(Worcation), 웰니스(Wellness) 등 일과 휴가, 건강과 행복을 즐기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세단장과 치유관광상품 개발, 소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대구-경북

‘팔공산’ 국립공원 된다… 6월 5일 확정

관광객 유입·지역 소득 창출 효과

대구·경북 지역에 걸친 팔공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국립공원 지정 고시’ 절차만 밟으면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공식 발표는 오는 6월 5일 ‘환경의날’에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에 승격되는 것이고 지난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 지정이다.

현재 팔공산은 팔공산 전체 면적 125.345㎢의 72%는 경북도 관할 지역에, 나머지 28%는 대구시 관할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당연히 관리체계도 대구경북으로 이원화돼 관리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팔공산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연간 180억 원의 관리비용과 140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다. 국립공원 승격 이후 연간 50만명 이상 관광객이 유입하고 그에 따른 지역의 소득 창출 효과가 필연적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K드라마에 빠질 수 없는 ‘관광도시 포항’

‘동백꽃 필 무렵’ 등 자연경관 눈길

포항시는 지역의 수려한 자연 경관 등이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든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포항이 한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드라마의 감동과 여운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2월 추천 여행지 테마를 ‘한류성지순례’로 정하면서, 포항의 청하공진시장과 구룡포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시청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뮤직 비디오 촬영지 등 6개 도시의 관광명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포항 청하공진시장과 구룡포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방영된 인기 한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갯마을 차차차’의 주요 촬영지이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바닷가와 평온한 시골 풍경들이 어우러진 이곳과 함께 사방기념공원, 곤륜산, 월포해수욕장, 이가리 닛 전망대, 구룡포 석벽리, 장기 양포항 등 포항의 빼어난 풍광이 방영 당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포항(경북)=김상복 기자